

발간번호

11-1492000-100009-14



고용노동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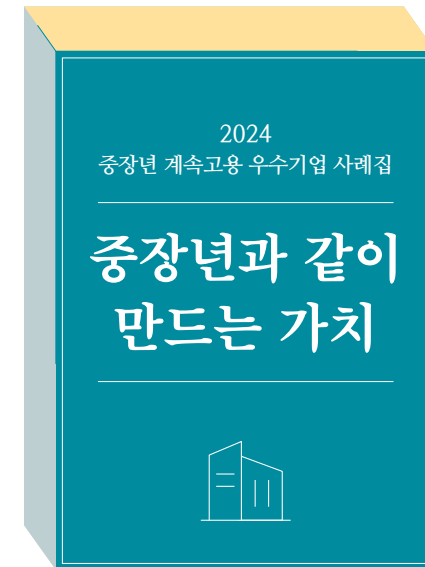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

중장년과 같이 만드는 가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며
쌓아올린 인생 내공을 바탕으로,
단단한 뿌리를 내린 중장년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중장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중장년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활용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목 차 CONTENTS

중장년의 '숙련 기술'로 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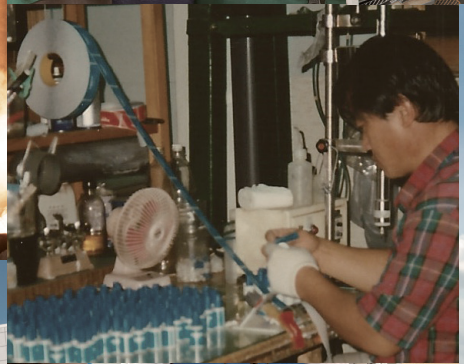
- 11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다
효성중공업(주)
- 19 탄탄한 기술력으로 강인한 철을 완성하다
동국제강
- 27 영어어간 기술로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열다
(주)오리엔탈정공
- 35 신뢰의 중심에서 특수합금강 선도를 외치다
(주)비케이엠솔

중장년의 '생산 노하우'로 최상의 제품을 완성합니다

- 45 식문화의 선도주자 중장년 명인들
동원홈푸드
- 53 중장년의 풍부한 노하우로 K-뷰티의 세계화를 꿈꾸다
(주)잉글우드랩코리아
- 61 기업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은 중장년
(주)동기 바르네

중장년의 '경험과 공감'을 담은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 71 주부의 경험으로 고객을 사로잡다
GS리테일
- 79 세월따라 무르익는 치유의 손길
의료법인 일산복음의료재단
- 87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주역은 바로 중장년!
의료법인 윤재의료재단 금강요양병원





중장년의 '숙련 기술'로 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 01 효성중공업(주)
- 02 동국제강
- 03 (주)오리엔탈정공
- 04 (주)비케이엠솔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다

효성중공업(주)

나무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이테로 고스란히 남듯이 사람에게서는 오랜 시간 쌓아온 연륜이 몸에 배인다.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중전기 분야에서 숙련공이 필요한 이유이다. 효성중공업(주)이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중장년 숙련공 덕분이다.



중전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



1966년 효성그룹이 창업했으며, 1975년 국영 중전기 제조회사인 한영공업을 인수해 창원공장을 준공하며 효성중공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산업 에너지의 핵심인 중전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는 물론 전동기, 기어 등 회전기기 사업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미주, 중동,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직류송전시스템 등 차세대 전력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 덕분이다.

...

“중전기 분야는 사람의 세밀한 손길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술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중장년 직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중장년 직원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청년 직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중장년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

총 2,200여 명의 직원 중 50대 이상 중장년이 30%에 이를 만큼 효성중공업(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이 활발히 일하고 있다.



중장년 재고용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효성중공업(주)의 정년은 60세이나, 정년퇴직 이후에도 2년간 숙련 촉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이후에도 팀의 요청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 70세의 나이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다. 최근에는 현장직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무직도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효성중공업(주)는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 사내 안전환경팀이 작업환경을 조사한 뒤 바닥 공사, 펜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특수건강 검진, 단체 상해보험 등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효성중공업(주)는 사내 유치원, 자녀 학자금, 주택 융자금 저리 대출, 기숙사 제공 등 탄탄한 복지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창원 지역 내 청년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직을 선호하지 않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장년 직원들의 재고용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또한 중장년 직원들의 경우 오랜 시간 쌓아온 숙련된 기술이 있어 업무 효율이 높습니다.”

/

윤도경 프로



중장년과 청년의 조화로 더욱 성장하다



정년퇴직 후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효성중공업(주)는 정년퇴직을 앞둔 중장년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50세 이상 사무직 팀장, 부서장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재무설계 등에 관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귀농, 창업에 대한 정보와 성공사례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본인을 내보내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오해하셨는데, 막상 듣고 나시고는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작년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말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효성중공업(주)는 직원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반장들이 세대공감교육을 받은 후 반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HOT(Hyosung One Team) 프로그램을 진행해 반별의 친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과 청년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전수되며 청년 직원들도 탄탄히 성장하고 있다. 김동욱 반원은 “아빠 뻘이신 중장년 직원들이 아들 처럼 잘 대해주시고, 경험이 많다보니깐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라며 장점이 많다고 전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련도가 있는 중장년 직원들을 유지해 기술을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효성중공업(주)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중장년 직원과 함께 하며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그려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박명주

직장

평생직장을

더 오래 다녀 행복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83년 효성중공업(주)에 입사해 2019년 정년퇴직까지 다닌 이후 2020년부터 숙련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주입니다. 현재 차단기 제작팀 보전반에서 품질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제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을 한 뒤 노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돼 근무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촉탁직이면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대부분인데, 우리 회사는 꽤 많이 급여를 줘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관리자이다 보니 지시하거나 관리할 일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젊은 세대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입사하고 쪽 쌓아온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종된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후배 사원들도 중장년 근로자들이 교육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잖아요.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공식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재계약하자고 하면 해야죠. 마음 같아서는 68세까지는 일하고 싶습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강인한 철을 완성하다

동국제강

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사람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몸도 마음도 단단해진다.
동국제강은 연륜과 책임감으로 단단해진
중장년 직원들과 친환경 철강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친환경 철강기업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동국제강은 1954년에 시작한 민간 최초의 철강기업으로, 건설과 조선업에 사용하는 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동국제강은 다른 철강기업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고철을 이용해 새로운 철강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로를 사용해 탄소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친환경 철강기업이다. 매년 다양한 종류의 고철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2022년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했으며, 2025년에는 62세로 연장한다.

...

“철강업이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직이 트렌드처럼 자리잡아 인력 수급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정년 연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장년 직원들은 기술력이 뛰어난 숙련공이기 때문에 정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동국제강은 정년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 후 축락직으로 (일부) 재고용하고 있다. 2024년 올해는 모든 생산공정을 직영화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당수 고용 승계했는데, 정년이 지난 80여 명의 축락직이 포함돼 있다.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간존중 경영



동국제강의 약 2,000명의 직원 중 50대 이상은 700여 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장기 근속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국제강의 풍성한 복지가 있다. 매년 건강검진과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직원과 더불어 가족 1인에게 종합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와 건강지원비를 지원해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에도 학자금 지원, 입학축하금, 출산축하금, 월동비 등 직원은 물론 직원들의 가족까지 든든히 지원하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이 막막한 직원들을 위해 동국제강은 2013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년퇴직 2년 전에 실시하며, 재무, 인생설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2박 3일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신 분들이기에 정년퇴직 시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정년여행을 보내드리고, 정년 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근무 1개월은 유급휴가를 지원합니다.



권영주 팀장



소통과 화합으로 혁신을 이어가다



동국제강이 오랜 시간 철강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탄탄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화합을 중요시하는 노사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회사의 수익, 생산 및 영업 활동 등 경영상황을 공유하며 노동조합과의 신뢰를 쌓고 있다. 노사간의 화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도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봉강생산팀 김진휘 씨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소통이 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중장년 직원들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셔서 형님이나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중장년 직원들은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다 보니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장년 직원들도 청년 직원들의 빠른 업무습득능력과 열정이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했다.

중장년 직원의 기술력과 청년 직원의 열정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동국제강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노사화합팀 권영주 팀장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을 일정기간 더 고용하는 것이 현재의 생산성과 인적 경쟁력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중장년 고용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탄탄한 기술력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동국제강의 중장년 직원들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기술력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이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은 젊은 인재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박 응 재

기성

더 오랜 시간
동행할 수 있어 기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85년에 동국제강 부산공장에 입사했으며, 현재는 인천공장에서 120톤 제강의 생산 총괄 기성을 맡고 있는 60세 박응재입니다.

동국제강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성과급 제도, 정년여행 등 다양한 제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정년 연장이예요. 원래는 정년퇴직 했어야 할 나이인데, 2년이 더 연장돼서 가족들도 무척이나 좋아해요.

젊은 세대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일할 때는 체계가 잡혀있어서 갈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앱, 컴퓨터 등 디지털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젊은 세대들에게 재테크,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은 기술이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제강은 고철로 철을 만들기 때문에 매번 데이터가 바뀌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원활하게 생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60세는 정년퇴직하기에는 아직 일할 여력이 충분한 나이이기에, 정년퇴직 이후에는 귀촌해서 저만의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글어간 기술로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열다

(주)오리엔탈정공

꾸준함은 강력한 무기이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단단해진다. (주)오리엔탈정공은 연륜과
성실함으로 결실을 맺은 중장년 직원들과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ORIENTAL

세계 최고 선박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



1980년 설립된 (주)오리엔탈정공은 44년간 사업을 영위해 온 조선 기계장비 업계의 선도 기업이다. 한국 조선 기계장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조선 기계장비업체 최초로 청년인재 창출을 위해 부산시와 MOU를 체결해 R&D센터를 구축했다.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국내 제일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했고, 선박용 크레인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오리엔탈정공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 덕분이다.

...

“중장년 직원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토로서 후배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배 직원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조직 문화를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주)오리엔탈정공은 2019년부터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중장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촉탁제도를 도입해 5년간 계속고용하고 있다. 중장년 고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도전 정신으로 화합을 이어나가다



(주)오리엔탈정공이 무한경쟁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며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 팀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팀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팀별로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세대 간격을 줄일 수 있었고, 덕분에 세대 간 지식과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장년 직원의 노하우와 청년 직원의 수용 자세가 서로 융합되며 (주)오리엔탈정공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혜지 사원은 “중장년 직원들은 조직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 덕분에 복잡한 업무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련한 기술자인 중장년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근속년도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시에는 순금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
송재만 관리부 상무



튼튼한 복지, 자긍심 올린다



(주)오리엔탈정공의 전체 직원 중 50대 이상 중장년 근로자가 33.6%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 평균 근속 연수 15년 이상을 유지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복지가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직원들의 생활 습관 개선을 독려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기반해 필요한 건강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상여금, 리프레시 휴가, 하계휴가비 및 유급 휴가를 제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했다. 또한 자녀와 본인의 학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기별로 학자금 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직원들의 가족까지 든든히 챙기고 있다. 가족 친화적인 복지제도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4년 워라벨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부문 부산광역시 시장상으로 선정됐다.

젊음은 열정적인 시이고, 노년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인생의 철학이다. (주)오리엔탈정공은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회사로 우뚝 서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황두상

상무

건강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92년 (주)오리엔탈정공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59세 황두상입니다. 입사 이후 설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했으며, 현재는 경영지원부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실까요?

일을 해야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오리엔탈정공에서 정년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먼저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해주어 정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워라벨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데, 저희 회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리프레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장년 직원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랜 시간 투자해 얻은 숙련된 업무 지식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후배들의 창의력과 어우러져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삶에 있어서 일이 있어야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회사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제가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신뢰의 중심에서 특수합금강 선도를 외치다

(주)비케이엠솔

성실은 성공의 열쇠이며, 노력은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성실한 노동은 그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맺기에 인내를 하고 견뎌낸다. (주)비케이엠솔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단단한 끈기를 가진 중장년 직원들과 특수합금강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린다.



인력난에 머리 지끈, 인구소멸 시계 빨라지는 한국



신생아 울음소리가 해마다 줄고 있다. 태어나는 이들보다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며 인구 자연 감소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이다. 출생률이 낮은 동시에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멸이 두드러진다. 지방 소멸이 두드러지는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이 떠날수록 인력난은 심화돼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중 한 곳이다. 한때 19만 명에 이르렀던 영천의 인구는 현재 겨우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영천시는 인구를 늘리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공장 부지 개발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다. 1998년에 창립한 (주)비케이엠솔도 그중 한 기업으로, 고내마모성 및 고내식성 특성을 가진 초합금 제품(베어링, 슬리브, 부시 등)을 주로 철강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외로 수출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근로자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든든한 구원투수 중장년으로 인력난 해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을까? 답은 의외로 쉬웠다. (주)비케이엠솔은 기술 능력을 보유한 중장년 직원을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해 계속고용하고 있다. 계속고용 시, 임금을 기존 임금에서 소폭 조정해 직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규 채용 시에도 연령과 경력을 제한 두지 않고 열정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들은 (주)비케이엠솔의 든든한 구원투수로 활약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뿐 아니라 정신을 풍요롭게 하여 보람찬 중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주)비케이엠솔은 든든한 지원군인 중장년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며, 식당을 계약해 직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 영천시가 공장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 대부분 대구나 경산 등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할 인력도 부족한데, 영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애써 고용한 직원들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

장은수 책임

세대 협업으로 그리는 미래

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재고용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면 수많은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였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박재연 사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방이나 공장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니 중장년 고용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중장년 직원들이 없으면 공장은 굴러가지 않을 거예요. 중장년 직원들이 단단하게 쌓아온 기술과 지혜를 차근차근 전수해 주셔서 배울 점도 많고, 일 처리가 능숙해 따라가다 보면 실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경력이 많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갈등 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에서 왔지만, 지금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말이 있다. 21세기의 젊고 역동적인 특수합금강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을 (주)비케이엠솔의 희망찬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신이 준 축복 같은 일
즐겁게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장은수

책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0년 째 (주)비케이엠솔에서 근무하고 있는 61세 장은수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입사 후 운영지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노동은 세 개의 악, 지루함과 부도덕, 가난을 제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은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어 좋고, 저의 능력을 발휘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장년 직원은 경험으로 쌓아 올린 노하우로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해요. 또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 후배들에게 숙련된 업무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나누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해 실력을 쌓아 올리며 회사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중장년의 '생산 노하우'로 최상의 제품을 완성합니다

- 05 동원홈푸드
- 06 (주)잉글우드랩코리아
- 07 (주)동기 바르네



식문화의 선도주자 중장년 명인들

동원홈푸드

장은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
사람의 손맛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진다.
동원홈푸드가 식품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깊은 손맛을 가진 중장년 덕분이다.



중장년의 손맛으로 성장한 종합식품회사



1993년 동원그룹 그룹사의 식당을 통합 운영하는 오리엔탈캐터링주식회사로 시작한 동원홈푸드는 현재 조미식품 제조, 식자재 유통, 푸드서비스, 축육사업, 외식사업까지 다양한 식품사업을 통해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No.1 식품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손맛 깊은 중장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외식판매,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평균 34세로 젊은 세대가 많지만, 직접 음식을 제조하는 생산직은 평균 46세, 조리원은 평균 49세로 대부분 중장년이다. 이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손맛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맛을 낸다.

동원홈푸드는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과 오랜 시간 함께 하기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축적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상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채용 시에도 건강해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면 70세가 넘는 조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다는 우려와 달리 노하우가 많아 오히려 일을 잘하세요. 조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직원이 75세인데, 일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뛰어나세요. 젊은 세대들과 힘을 합쳐 점포를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

장경혜 HR서비스1팀 차장



협력과 전수로 활력을 띠는 현장



동원홈푸드는 아산, 충주, 경기, 성남 4개의 공장과 푸드코트, 구내식당 등 400여 개의 조리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을 만드는 공간 특성상 위험한 물품과 장비가 많아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각 공장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매일 사고 사례를 공유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공장과 조리점포에는 20~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생기곤 한다. 하지만 중장년이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며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다. 특히, 30~40년간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를 전할 수 있도록 경력직 조리사와 인턴 조리사를 1:1로 매칭해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권진우 조리사는 “중장년 직원들은 오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 신입 직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조리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술이나 비결 뿐만 아니라 컴플레인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어 믿음직스럽습니다.”라고 전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변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중장년 근로자들은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중장년 근로자들이 제2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2023년 기업컨설팅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박 2일간 변화관리, 건강관리, 재무, 은퇴 후 부부관계, 여가설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직원들은 만족했다. 올해도 하반기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고령시대에 발맞춰 제2의 인생 설계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견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장경혜 차장은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하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고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중장년 계속고용 지원제도 완화 및 확대 등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과 노하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글어간다. 동원홈푸드는 영글어 단단해진 베테랑 중장년과 함께 더욱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축적된 노하우로
최상의 음식을 만듭니다



전종우

조리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63세 전종우입니다. 저는 주방 운영 관리, 메뉴 품질 관리, 직원 교육을 통해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생동감 넘치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유대감을 쌓아온 동료들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제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젊은 세대와 문화 차이로 인해 소소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이 큰 자산이죠. 또한 성실함과 책임감은 중장년 근로자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죠. 이러한 경험과 태도가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하고 싶습니다. 일의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려 계속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중장년의 풍부한 노하우로 K-뷰티의 세계화를 꿈꾸다

(주)잉글우드랩코리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주)잉글우드랩코리아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하우를 발휘하는 중장년 직원들과 K-뷰티의 세계화에 힘차게 나래를 펼치고 있다.



K-뷰티 화장품 시장 트렌드의 중심이 되다



K-뷰티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진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가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현지인들이 원하는 니즈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브랜드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을 내세운 가성비 화장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국에서 유명한 화장품 개발·생산업체인 (주)잉글우드랩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2017년 엔에스텍을 인수해 (주)잉글우드랩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상품 기획부터 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OGM 회사이다. 현재 (주)잉글우드랩코리아는 기초, 색조, OTC(Over-the-Counter) 화장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 아마존(Amazon), 월마트(Walmart), 알타(Ulta) 등 미국향 고객사의 화장품 유통채널 확대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창고 증축을 통해 미국 고객사의 대량 수주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주)잉글우드랩코리아가 세계로 진출까지 꾀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중장년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 만족도 UP! 탄탄한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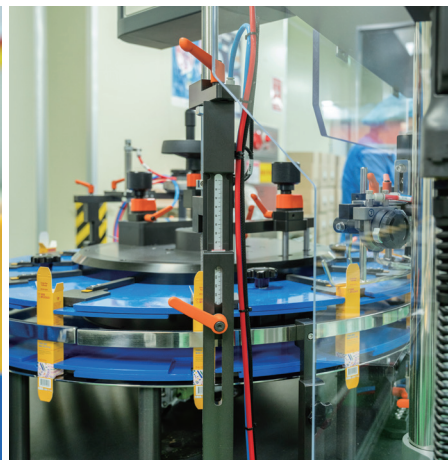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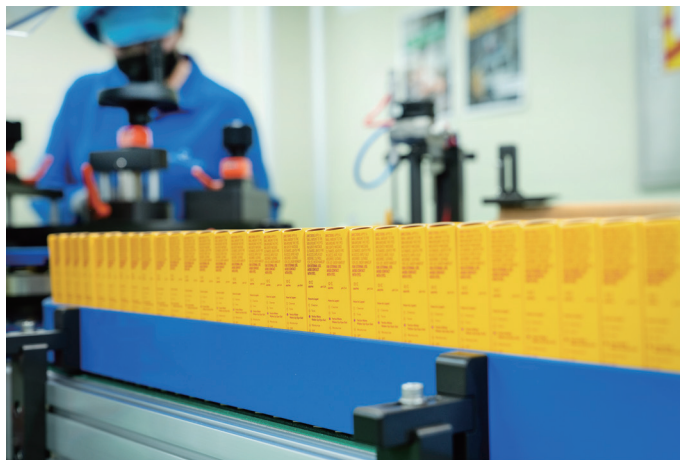
아직 화장품 산업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이 많아 체화된 손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뚜껑을 닫고 용기에 담는 포장 업무에 과연 노동력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신입 직원이 작업했을 때, 숙련된 직원에 비해 생산량이 60%까지 떨어졌다. 이에 (주)잉글우드랩코리아는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을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팀장, 공장장의 평가 절차를 거쳐 1년 단위 축탁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과 임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장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잉글우드랩코리아는 노력 중이다. 중장년들의 건강을 고려해 무거운 물건 이동 등의 업무를 조정해 주고 있으며,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직원들이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5층 식당 옆에 카페바를 마련했으며, 여름 유급휴가 2일을 추가로 제공해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상품권 지급, 자녀들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알뜰히 살피고 있다.



중장년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많으시잖아요.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하셔서 저희 회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력입니다.

/
김영권 경영기획팀 대리



세대 간 협업으로 이뤄낸 시너지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근무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다양한 세대가 서로 배려해 이해하고 신뢰를 쌓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잉글우드랩코리아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강혜빈 사원은 “중장년 직원들이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불편한 점이 전혀 없어요. 경험과 지혜가 많으시다 보니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셔서 배울 점이 많아서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장년 직원은 청년 직원이 딸·아들 같아서 더 잘 챙겨주게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근무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은 경험과 노하우, 유연함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에 계속고용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60세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잉글우드랩코리아 인사 담당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중장년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프로그램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한다면 중장년 고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생은 60살부터 시작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중장년 인재와 미래를 꿈꿔야 할 때이다. 풍부한 노하우로 회사의 발전을 이끄는 중장년 직원들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주)잉글우드랩코리아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빛나는 중장년



노은숙

사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7년째 (주)잉글우드랩코리아에서 생산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60세 노은숙입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 나와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자신감도 차오릅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원활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청년 직원들이 저희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엄마처럼 존중해 주고, 저희도 딸처럼 생각해 챙겨주다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청년 직원들의 밝은 에너지로 저희까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랜 시간 투자해 얻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어 보람도 느끼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최소 2년은 더 일하고 싶어요. 일하면 삶의 활력도 있지만 보람도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 순 있지만, 제 건강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 잡은 중장년

(주)통기 바르네

나무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탄탄해야 한다.
기업의 발전도 같다.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바른 물품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통기 바르네는 숙련된
중장년들이라는 탄탄한 뿌리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문구용품이라는 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국내 최초 수정액·테이프 국산화 실현



1990~200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앞에 문방구가 꼭 있었다. 캐릭터로 장식된 연필, 펜, 노트, 지우개 등 다양한 학용품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문구산업의 호황기였다. 우리나라 문구산업은 70년의 역사가 넘는다. 초반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1970~8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 생산이 늘어나며 우리가 익히 아는 브랜드들이 생겨났다. 그중 한국이 (주)동기 바르네이다. 1986년 동기실업으로 창업한 (주)동기 바르네는 국내 최초로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국산화를 실현하며 문구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2001년에는 외국에서만 생산 중이던 풀테이프 국산화를 성공했으며, 조달청을 통해 정부부처에 풀테이프를 납품했다. 지속적으로 단일품목을 생산하며 기술력을 높인 결과,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오랜 시간 단일제품으로 문구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진욱 이사는 “수정테이프, 풀테이프 제작 시 기계는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다보니 3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이에요. 오랜 시간 합을 맞춰온 중장년들의 숙련된 손길이 없으면 완성도도, 생산량도 보장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중장년의 손길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다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진 중장년의 숙련된 손길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주)동기 바르네의 직원 대부분이 중장년이다. 44명의 직원 중 50대 이상이 30명이나 돼 정년퇴직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주)동기 바르네는 2024년부터 60세 정년 이후에도 중장년을 계속고용하고 있다. 1년 단위로 회사와 협의 후 재계약하고 있으며, 올해는 3명의 중장년을 계속고용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지원도 받고 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회사 창립 때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해 건강한 식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 여성 직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식사 이후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마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 가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올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함께 스트레칭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중장년 직원들은 대부분 저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예요. 새댁 때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무하고, 현재 계속고용도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근무한 직원들의 숙련도와 노하우는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진욱 이사



끊임없는 소통으로 강해진 협력의 힘



사람들이 어우러져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주)동기 바르네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매월 2~3회 반장님들과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개인 면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니 협력의 힘이 더 강해졌다. 해외영업부 김지영 사원은 “처음 하는 일들도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금방 해결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문제상황도 금방 해결하고,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중장년 직원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로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며 회사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회사의 중추적인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욱 이사는 “고령화 시대에 60세 정년 퇴직은 빠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숙련된 인력과 함께 할 수 있어 좋고, 중장년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채워가고 있지만, 섬세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 (주)동기 바르네는 섬세하고 숙련된 손길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과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며 문구업계 내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간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일이 재미있어서
삶의 활력이 넘쳐요



장혜정

사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동기 바르네에서 수정테이프와 폴테이프를 조립하고 있는 장혜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식을 하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2003년에 (주)동기 바르네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처음에 배울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늘 하던 일이고, 재미있이 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에는 제 손이 다 가니깐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때도, 생활할 때도 여유가 생겨서 문제상황도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건강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의 '경험과 공감'을 담은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에 다가갑니다

- 08 GS리테일
- 09 의료법인 일산복음의료재단
- 10 의료법인 윤재의료재단 금강요양병원

주부의 경험으로 고객을 사로잡다

GS리테일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는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경험으로 쌓은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다. GS리테일은 삶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장년층 직원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장년층 직원



1971년 금성전공(주)으로 시작한 GS리테일은 1974년 럭키슈퍼, 1990년 LG25를 오픈하며 종합유통사로 도약했다. 2021년에는 홈쇼핑 GS샵과 합병했으며, 현재 GS리테일은 18,000여 개의 편의점 브랜드 GS25와 520여 개의 슈퍼마켓 브랜드 GS THE FRESH를 운영하며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S THE FRESH가 500호점을 돌파하며 슈퍼마켓 업계 1위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중장년층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브랜드인 GS THE FRESH는 50세 이상 중장년층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한다. GS THE FRESH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중장년층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하고 있다.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면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근무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동만 팀장



GS THE FRESH의 주고객층이 40~60대이다 보니, 비교적 주부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추천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매장에서 5~10년 이상 근무한 중장년층 직원의 경우 고객의 구매 패턴과 트렌드 변화, 회사 시스템, 상품 판매 추이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GS25 GS SHOP GS THE FRESH

주부의 노하우로 활약을 펼치다



GS THE FRESH는 중장년층 직원들의 경험을 높이 사 재고용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인력개발사업 수행기관인 인지어스와 시니어인턴십 협약을 체결해 60세 이상 중장년층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 중장년층 직원들은 진열, 판매, 계산 등 GS THE FRESH의 주업무를 담당하는 스토어 매니저로 근무하며, 주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GS THE FRESH는 중장년층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장년층 직원과 매장 점주의 협의 하에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희망일자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며, 물류 하역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든든한 복지제도로 중장년층 직원들의 장기근속도 고취하고 있다. 명절과 경조사 수당은 물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GS계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후 퇴직 시에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GS25, GS THE FRESH 창업을 지원한다.



젊은 세대들은 계절음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계절음식에 맞춰 채소, 과일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셨습니다. 퇴근하시는 길에 매장에서 장을 보신 후, 제품에 대해 상세한 피드백을 주셔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원웅 매니저



소통으로 장점을 더욱 빛내다



GS THE FRESH에서 근무하는 중장년층 직원과 청년 직원간의 소통도 활발하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신뢰가 쌓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세대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을 더욱 빛나게 한다. GS리테일 김세중 매니저는 “60세 이상 중장년층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편견이에요. 70세 직원분도 1인분 이상의 몫을 잘 해내시고 있어요. 특히 강한 책임감과 다양한 업무 노하우 등은 중장년층 직원들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중장년층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는 GS리테일만의 세대간 소통 프로그램도 한몫 한다. DNI위원회를 조직해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며, MZ직원이 선배 직원에게 솜품과 같은 디지털기술 사용법을 전수하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교감의 장을 만들고 있다.

중장년층 직원들은 GS THE FRESH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이다. GS리테일 원웅 매니저는 “GS THE FRESH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직원이 많은데,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 지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신규 중장년층 직원 뿐만 아니라 재고용하는 중장년층 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라며 정책 개선을 바란다고 전했다.

베테랑의 경험과 실력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풍부한 경험으로 활약을 펼치는 베테랑 중장년과 GS THE FRESH는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인생은 지금부터
꽃보다 중년!



이강희

스토어 매니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1년 GS THE FRESH에 입사해 현재 도곡역슬점에서 스토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65세 이강희입니다.

GS리테일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한군데에서 정년이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워라벨이 좋은 근무환경입니다.

젊은 세대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스토어매니저가 50~60대 중장년층으로 같은 세대로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젊은 세대로는 매니저님이 있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서로 의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장년층 근로자는 연륜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업무 경험으로 얻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건강과 마음 상태로는 앞으로 몇 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기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활력도 느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세월따라 무르익는 치유의 손길

의료법인 일산복음의료재단

의술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과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은 숙련도가 어떤 직업보다도 중요하다. 의료법인 일산복음의료재단이 중장년 직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험과 따스함으로 쌓아온 신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건강을 꼽는다. 하지만 질병은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섬세한 치료로 오랜 시간 사랑받는 한 병원이 있다. 바로 일산에 위치한 의료법인 일산복음의료재단(이하 일산복음의료재단)의 일산복음병원과 일산복음재활병원이다. 일산복음의료재단은 1989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원능복음병원을 개원했으며, 1998년 현재 위치인 일산동구 중산동으로 이전 개원하며 일산복음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5년에 일산복음요양병원을 추가 개원했으며, 2023년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산복음재활병원으로 바뀌었다.

오랜 시간 일산복음의료재단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직원들 덕분이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중 50대 이상 중장년 직원은 44%에 달한다.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만 하다면 함께 계속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 10~35년 이상씩 근무하며 병원의 기둥이 되어준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꾸준히 찾아주시는 환자들도 많아요.

손재상 이사장



튼튼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중장년



지식과 기술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든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장년 직원들은 일산복음의료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에 일산복음의료재단은 2022년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 이후에는 매년 촉탁직으로 재계약하고 있으며, 건강상 이유가 없는 한 계속고용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지원인력 등 여러 직군에서는 신규로 중장년을 채용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산복음의료재단은 건강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심층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점심시간에 요가와 같은 근력 운동 프로그램, 걷기 챌린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숙사 운영, 무료 식사 제공, 카페테리아 쿠폰 지급 등 풍성한 복지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매년 재계약을 하며 계속고용을 하게 됨에 따라 중장년 직원들이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안정감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져 환자들의 만족감이 높아져 병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김지선 총무부 차장



소통과 공유로 만들어가는 미래



병원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이 365일 쉬 없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운영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중장년 직원들과 청년 직원들은 함께 일하고 소통하며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원무과에 재직 중인 장혜림 사원은 “중장년 직원들의 오랜 연륜을 배우고 들으며 배울 수 있어 제 첫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환자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업무에 세세한 부분은 물론 마음가짐까지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중장년 직원들은 청년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곁에서 보며 새로운 활력을 얻어 일산복음의료재단은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중장년 직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일산복음의료재단은 안정적인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후배 양성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김지선 차장은 “오랜 시간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연륜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중장년 직원들이 병원에서 주춧돌의 역할을 하며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힘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라며 중장년 직원들의 계속고용 및 신규채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은 기술력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중장년 직원들은 환자들의 몸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준다. 이들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로 일산복음의료재단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최 응 열

사원

제2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산복음병원에서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77세 최응열입니다. 대한통운에서 30여 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일산백병원에서 10여 년간 근무했으며, 이후 소개를 받아 2012년 일산복음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넘어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로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니 환자와 가족처럼 안부를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산복음병원에서 가장 만족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우수 직원이나 장기 근속 직원에게 표창과 상여금을 주어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와 음료 쿠폰을 제공해 주시는데, 특히 식사는 건강식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륜에 따른 생활 속 지혜나 노하우가 있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산복음병원이 오래되다 보니 연세가 많은 환자들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리거나 소소한 대화를 할 때 환자들이 편안해 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전에 스스로 결정해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주역은 바로 중장년!

의료법인 윤재의료재단 금강요양병원

노인성 질환으로 아픈 어르신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듬는 따스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세월을 살아오며 여러 상황을 겪어 누구보다 포용력이 넓어진 중장년이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그려가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동행



2023년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면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세월의 풍파를 오롯이 받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인질환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질환 환자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돌봄까지 지원하는 요양병원도 현재 전국에 많이 있다. 의료법인 윤재의료재단도 노인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위해 2010년 4월 문을 열었다. 현재 220여 명의 환자를 위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보호사, 행정직 등 1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

“요양병원 특성상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에 청년보다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많아 직원 중 65~70%가 중장년입니다. 중장년들은 시부모, 친정어머니 등 가족들을 돌본 경험이 있다보니 청년들보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그렇다보니 저희 병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요양병원에 중장년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

물론 청년 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노인질환이나 요양병원에 관심을 갖고 경력을 쌓기 위해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 20대 직원들도 금강요양병원에 근무 중이다.



관록의 힘을 이어가는 중장년 재고용



하지만 오랜 시간 금강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장년들이 정년 60세가 다가오면서 퇴직을 앞두고 됐다. 이에 금강요양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하고 있다. 60세 정년 이후, 금강요양병원과 중장년 직원이 모두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1년 뒤에도 건강,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돼 사실상 근무 기간에 제한이 없다.

중장년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는 금강요양병원의 복지도 한 몫을 더했다. 1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황금열쇠를 수여하며, 식비를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지만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50% 지원했으며, 직원들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봄나들이, 송년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특수검진, 잠복결핵 검사, 독감 접종 등의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도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이와 관계없이 금강요양병원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경력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3교대 근무조건도 동일하다.



중장년 직원들을 재고용할 때, 임금 삭감 없이 예전 임금 그대로 적용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85세인 원장님도 진료와 처방 등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
고경희 원무부장



경험으로 쌓은 자산을 전하다



금강요양병원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중장년 직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하면서 변화에 예민한 노인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료진과 함께 노인 환자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요양보호사의 70~80%가 장기근속자이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많아 환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공감능력과 포용력이 풍부한 중장년 직원들은 환자들과 잘 소통할 뿐만 아니라 청년 직원들과도 잘 어우러졌다. 20대인 박선범 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직원들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 업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지혜까지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장년 직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청년 직원들은 서류 작업 등을 도우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 재고용으로 금강요양병원은 안정의 궤도에 올라섰다. 고경희 원무부장은 “노인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포용력이 필요한 요양병원에는 중장년 직원들이 업무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기다려주고, 대화를 통해 말뼉이 되어줌으로서 마음의 위로와 요구사항을 해결하며, 때로는 환자에 대한 섬세한 관찰내용을 의료진에게 전달해 줌으로 환자의 의료케어와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다보니 저희에게 중장년 직원 계속고용은 필수적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중장년 직원을 계속고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중장년 직원들은 활발한 사회생활로 보람있는 삶을, 환자들은 따스한 돌봄으로 행복한 노후를 함께 그려가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INTERVIEW

Q&A

매일 즐거운 기분으로
출근합니다



정혜경

수간호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81년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간호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64세 정혜경입니다. 2020년에 종합병원을 정년퇴직한 후 친구가 금강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놀러왔다가 근무환경이 좋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요양병원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일할 수 있고, 제가 하고싶지 않을 때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하면 황금열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받아보려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심히 신경 써주셔서 일하기 편합니다.

젊은 세대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방법을 찾았어요. 사적인 질문을 절대 하지 않고, 업무시간을 철저히 지켜주는 등 청년들의 특색에 맞게 해주었더니 청년 직원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덕분에 젊게 살고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을 때보다는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또 경험이 많아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장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어제 일을 까먹거나 하면 관둬야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향하는 중장년,
이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술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사유를 고루 갖춘 인재입니다.
기업과 사회의 일원으로 고요히 변화에 스며든 중장년과 같이
각별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고용노동부
발행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기획·촬영·디자인 디가온 (dijam@naver.com)

